

	보 도 자 료	
	작성	국토인프라연구본부 김상록 부연구위원(044-960-0383)
	배포	홍보출판팀 이유설 행정원(044-960-0443)
보도일시	■ 즉시 보도 가능	

“이동시간의 질적 향상에 따른 국토공간이용 변화 전망” 국토研, 국토정책Brief 제897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인프라연구본부 김상록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이동시간의 질적 향상에 따른 국토공간이용 변화 전망』에서 이동시간의 질적 향상에 따른 통행행태 변화와 국토공간이용 변화 전망을 파악하고 정책 활용방안을 제안했다.
 - 교통수단 성능의 향상으로 이동시간이 쾌적해지고 교통수단 내부에서의 다양한 부가활동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장기적인 국토이용 패턴 변화를 전망하고 정책 방안을 제시
- 차내의 쾌적성이 증가하고 다양한 부가활동이 가능해질수록 통행시간가치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전체 통행패턴에서 장거리통행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완전 자율주행 도입으로 승용차 통행시간가치가 26% 감소, 프리미엄고속버스 도입으로 버스 통행시간가치가 67% 감소
 - 통행시간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저항이 낮아짐에 따라 2040년에는 총 주행거리 및 주행시간이 15%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 통행행태의 변화에 따라 일자리 및 주거지 선택, 여가통행 등 국토공간이용에도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통근시간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완화로 지역별 접근가능 평균 구인자수가 43% 증가
 - 한계통근시간 증가로 주거비가 저렴한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이주확률 증가
 - 여가통행이 늘어나며 연간 약 1조 1,216억 원의 여행지출액 증대효과 발생

- 김상록 부연구위원은 본 연구의 이동시간 질적 향상에 따른 통행시간가치 추정, 국토공간이용 패턴 변화 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 (투자평가) 주거지 선택확률 변화, 관광수요 증가 등 정책성 평가지표로 활용
 - (국토정책) 이동시간의 질적 향상은 장기적으로 국토를 고르게 이용하는 방향으로 국토공간이용을 변화시키며, 일자리, 교육 등 주요 기능은 대도시로 집중하고, 주거 및 여가는 외곽으로 확산되는 주거와 노동, 여가의 분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 (자율주행) 자율주행의 도입에 따른 통행시간가치 감소, 이동거리 증가 등을 고려하여 장래 자율주행 관련 정책 및 타당성 평가 시 기초자료로 활용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이유설 행정원(☎044-960-04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표 1 통행시간가치 추정결과

(단위: 원/시/인)

차종 구분		통행목적			
		전체	출퇴근	업무	여가
승용차	일반 승용차	12,988	12,991	13,545	12,695
	조건부 자율주행	11,142	11,062	11,926	10,272
	완전 자율주행	9,653	9,767	10,084	8,155
고속버스	일반 고속버스	37,496	37,594	36,674	37,154
	프리미엄 고속버스	12,188	12,232	11,871	11,660

그림 6 지역별 접근가능 일자리 증가

